정진, 가피가 되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피는 기적이라고. 어느 날 병이 나았고, 운이 좋아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가피는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한순간의 기도, 한 번의 절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간절함이 있었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시간, 흔들리지 않기 위한 깊은 다짐이 있었다.

'가피(加被)'.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피는 매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면서 쌓여가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나아가게 만든다.

이번 봉축특집 '정진, 가피가 되다'에서는 진정한 가피의 의미와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체득한 불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가피와 기복의 차이를 짚고, 경전 속에 담긴 가피의 본질을 되새긴다. 특히 불교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각자 성격에 맞는 신행 방법을 제시해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피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믿는다. 가피는 멀리 있지 않다고. 그것은 부처님의 은혜와 묵묵한 정진이 만나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자. 그러면 어느덧 가피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글=김내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